LG상사, 오만유전 1만2000배럴 시추

LG상사는 오만 웨스트 부카 유전광구 시추 결과 하루 1만2000배럴 생산규모의 경질유(원유)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11월27일 발표했다.

또 하루 생산량 2200만입방피트의 천연가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.

LG상사 관계자는 “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가시추를 한 결과 해저 4000-4300m 구간에서 매장량을 확인하는 결과가 나왔다”면서 “앞으로 추가작업 등을 거친 뒤 2008년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오만의 웨스트 부카 유전은 영국 Indago가 40%의 지분으로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 LG상사는 50%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28>